해남군, 친환경 국산바나나 본격 수확

해남군에서 재배되는 바나나가 7월부터 본격 출하된다.

2농가 36톤 수확 예정…3억2000만원 조수익 예상

보통 2년에 3회정도 수확…수입산 비해 선호도↑

올해 해남에서는 2농가 0.6ha 면적에서 36톤의 바나나를 수확할 예정으로, 3억 2,000여만원의 조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나나는 정식 후 1년생부터 수확이 가능하며, 생육이 좋을 경우 보통 2년에 3회 정도 수확한다.

7월 수확을 시작하는 북평면 소재 신용균(75세)의 바나나 농장은 지난해 첫 수확을 통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바나나 수확축제 개최를 비롯해 해남미소와 백화점 등에 납품하며 해남 바나나 재배의 성공을 알렸다.

지난해 7월 바나나 나무 470여주를 식재, 1년여만에 수확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는 옥천면 소재 바나나 농장에서도 9월부터 수확을 시작한다.

국내산 바나나는 나무에서 충분히 숙성한 뒤 따기 때문에 맛과 향이 뛰어나고,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돼 고온이나 농약으로 살균처리하는 검역과정을 거치는 수입산에 비해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해남산 바나나 수확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작목 생산기반을 구축해온 해남의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의 최대 성과로, 내륙에서의 바나나 재배 가능성을 입증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물 육성을 적극 추진, 농업기술센터 내 ICT첨단하우스내에서 아열대 작목에 대한 실증재배를 실시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등 다양한 아열대 과수를 농가에 보급, 새로운 소득원으로 성공리에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해남군의 아열대작물의 재배 면적은 무화과 23ha를 비롯해 참다래와 부지화, 여주 등 125ha로 전남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바나나는 수용성 팩틴과 칼륨, 무기질을 가지고 있어 체내 나트륨, 독소 및 중금속 배출을 도와 섭취시 고혈압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바나나에 있는 트립토판 성분은 뇌에 기분을 좋아지게하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 긴장과 우울,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다.

신용균씨는 "해남의 기후가 다른 지역보다 따뜻하고 친환경적인 전기 난방기를 설치하여 경영비가 크게 들지 않아 바나나 농사에 도전하게 됐다"며"작년 첫 수확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올해도 학교급식, 백화점 등 다양한 곳으로 해남 바나나를 출하할 계획으로 바나나를 비롯한 아열대 과수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많은 분들이 해남 농업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명현관 군수는"기후 변화와 소비성향의 변화로 아열대 작목이 향후 경쟁력 있는 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바나나 뿐만이 아니라 파인애플, 레드향 등 다양한 아열대 과수를 도입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완도군 LPG 배관망 구축 안전·저렴 연료 환경 조성

LPG저장소·배관망·가스보일러·안전 계량기 등 설치 완료

완도군은 6월 29일 농공단지에 위치한 LPG 공급관리소에서 완도군 LPG 배관망 지원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열린 이날 준공식에는 신우철 군수, 박재선 군의회 부의장, 황갑용 (재)한국LPG배관망사업단장을 비롯한 주민 등 60명이 참석했다.

완도군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은 도시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취사, 난방 등 연료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연료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9년 3월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공사에 착수했다.

총 사업비는 국비 및 지방비 등 총 45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LPG 저장소(150톤), 배관망(54km), 옥내 배관, 가스보일러, 다기능 안전 계량기 등이 설치됐다.

사업 대상은 완도읍 19개 마을, 3,991세대로 전국 13개 도시가스 미공급 지자체 중 두 번째로 저렴한 가격에 LPG를 공급받게 된다.

연료비는 연간 3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고 편리성이 증대되었으며 불필요한 연료비 지출 감소로 군민 가계에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배관망사업단, 가스 공급사와 연계하여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진도군 보건소 "국가 암 검진 미루지 말고 지금 받으세요"

최근 재가암 자조모임 개최…암 재발 예방·건강증진

진도군 보건소가 최근 의신면 사천리 무장애 숲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동행의 시간을 통해 재가암 자조모임을 개최했다.

암 경험자와 가족,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재가암 자조모임은 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열렸다.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정서적 안정과 마음을 교감하고 위로하며, 건강 정보교류를 통해 암 재발 예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일상의 답답함을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심신 이완을 위한 명상과 편백숲 나무 그늘 아래 산책길을 따라 걸으며 함께 소통하고 멋진 포즈로 인증샷 찍기 등 담소를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건강한 식단을 위한 영양교육 ▲스트레스와 우울증 예방을 위한 웃음치료 ▲우울감 해소를 위한 원예치료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회복을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자조모임 참여 및 암 관련 문의는 진도군보건소 방문보건팀(061-540-6924)으로 하면 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검진 실천으로 암을 예방하고 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복령' 재배 희망농가 선진지 견학

약용버섯 재배·가공·유통 등 생산 전체 과정 벤치마킹·노하우 습득

장흥군의 복령 재배 희망농가와 관계자 10여 명이 지난 6월 28일 국내 주요 약용버섯 재배지에 대한 현장 견학 및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서 추진한 이날 견학은 익산, 고창, 화순에 위치한 복령과 목이버섯 재배지 3개소를 방문해 선도농가의 재배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습득했다. 또한 선도농가와 판로 개척, 유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가졌다.

복령, 목이버섯 등 약용버섯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이번 견학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는 올해 조성한 희망농가의 시범 재배지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지역 특산품인 표고버섯 외에도 복령, 목이버섯, 참바늘버섯, 동충하초 등 다양한 약용버섯을 발굴·보급해 주민 신소득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장흥=김도영 기자

강진군, '수산물 포장재 고급화 사업' 추진

고급화 포장재 및 소형저장고 지원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총력

강진군이 강진만에서 생산되는 청정해산물과 농업특구에서 생산되는 토하 등의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포장재 및 저온저장고 보급 사업에 나섰다.

군은 2018년부터 저온저장시설 63동과 82개 수산물 생산업체에 14억 원을 투입해 택배용 포장재 및 소형저온저장고 보급 사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온저장고 6동과 옴천 토하, 전복, 김, 미역, 매생이 생산 어가 30개소에 택배용 소포장재를 지원한다.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깨끗한 강진군 수산물 이미지 제고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품목에 대해 포장재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강진의 지역특색을 살리는 디자인 개발과 단일화, 브랜드화를 실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포장재 고급화사업에 참여한 김동신(73세) 토하연구소장은 "군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강진의 특산물인 토하양식, 가공, 식품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